



석학 초청 특강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 귀뚜라미의 소통(疏通)과 지식의 통섭(統攝)

2014년 7월 21일

청운관 B117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 개요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암 박지원, 그리고 다산 정약용. 언뜻 보아 한데 묶일 수 있는 공통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은 모두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천후 학자들이다. 남들은 평생 한 분야에서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우지 못해 찼찼매건만 이들은 어떻게 그 많은 분야들을 넘나들며 종합무진 활약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다뤄야 했던 지식의 총량이 그리 방대하지 않아 한 특출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들과 같은 학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즉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우리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종류와 규모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첼리스트 장한나에게 덕담으로 들려준 우리 옛말이 있다.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나는 21세기의 학문 중 그 어느 것도 다른 학문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리의 심연에 이르려면 깊게 파야 하고, 그러자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평생 동안 파도 표면조차 제대로 긁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통섭(統攝)을 해야 하는 무식하리만치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분과학문의 20세기가 저물고 바야흐로 통섭학문의 21세기가 열렸다.

이제 융합과 통섭은 시대적 대세이다. 통섭을 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통섭은 주로 여럿이 함께 이뤄야 한다.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통섭을 이뤄내려면 우선 소통이 필요하다. 학문 간의 소통 없이는 지식의 통섭은 불가능하다.

귀뚜라미는 수컷이 소리를 내고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들면 접근하여 짝짓기를 한다. 그런데 귀뚜라미 수컷은 왜 밤새 울어대는 것일까? 수컷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 없다. 반드시 암컷의 몸을 빌려야만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수컷은 암컷의 간택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구애를 하는 것이다. 번식에 관한 한 암컷이 먼저 소통의 노력을 기울일 까닭은 없다. 번식을 위한 소통의 노력은 순전히 수컷의 몫이다. 소통은 이처럼 원래 잘 안 되는 법이지만 많은 경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노력은 필요한 쪽에서 이를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한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로 우리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또 다른 시 ‘담을 고치며(Mending wall)’에 나오는 말처럼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아무리 분과학문의 시대가 저문다고 해도 분야 간의 담을 완전히 허물기는 쉽지 않다. 담이 없으면 한 집안이지 이웃이 아니다. 그리고 한 집안이 되었다고 모든 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통섭은 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충분히 낮추자는 것이다.

## 소개



###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1954년 1월 강원도 강릉에서 4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기를 꿈꾸다가 솔제니친의 <모닥불과 개미>,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을 읽고 생물학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1975년 하루살이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곤충학자 조지 에드먼즈 교수를 만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197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학위, 1990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학교, 미시간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94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직을 제안받고 귀국했다.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현재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3년부터 국립생태원장직을 맡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 한국생태학회장, 기후변화센터와 136환경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1998년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교육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맡아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의 대중화를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했다.

미국곤충학회 젊은과학자상, 대한민국과학문화상, 국제환경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했고,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을 비롯하여 4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개미제국의 발견>, <통섭적 인생의 권유> 외 30여 권의 책을 저술하거나 번역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7월 21일(월)	14:00~14:03	강연자 소개	청운관 B117호
	14:03~15:30	특강	
	15:30~15:55	질의 응답	
	15:55~16:00	폐회	

사회 정종필 미래문명원 부원장



UNIVERSITY LECTURE

석학 초청 특강 University Lecture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학 초청 특강은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실천인을 강사로 초빙해 우리 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